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1.(일) 11:00 < 9.2.(월) 조간 > 배포 2024. 8. 31.(토)

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

- 9월 늦더위 대비 전력수급 관리현황 재점검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하였다.

* 9월 1주 평년기온 대비 높을확률 60%, 비슷할확률 30%
9월 2주 평년기온 대비 높을확률 40%, 비슷할확률 40% (8.22일, 기상청 1개월 전망)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24.8.20, 97.1GW)를 기록했음에도 전력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설비 관리와 실시간 대응 노력 덕분에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기관과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과거 발생한 가장 큰 전력 위기상황은 한 여름이 아니라 2011년 9월 15일에 늦더위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요**

◈ 9월에도 이상고온이 지속될 수 있어 전력수급 전망을 살피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 회의 개요

○ (일 시) '24. 8. 31.(토) 10:00~10:50 (50분)

○ (장 소)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

○ (참 석) 산업부 장관, 전력거래소, 한수원, 발전 5사

□ 세부 일정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10:00 ~10:35	5′	· **모두 발언**
	5′	· **하계 전력수급 실적 및 9월 전망 (전력거래소)**
	15′	· **9월 발전설비 관리계획 (발전6사)**
	10′	· **토론 및 맺음말씀**
10:35~10:45	10′	· **전력관제센터 시찰**
10:45~10:50	5′	· **기념촬영 및 환송**